

전시품, 다시 태어나다 「리본데이」

- 국립과천과학관, 「다시 ON 전시품」 통해 전시품 10점 4개 기관에 이전
- 리본(Ribbon)해서 리본(Re:born)... 전시 자원 선순환 및 과학문화 확산

국립과천과학관(관장 이충원)은 기존 전시 공간에서 활용을 마친 전시품을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하여 다시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「다시 ON 전시품」 사업을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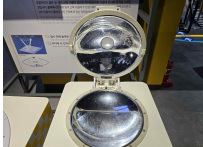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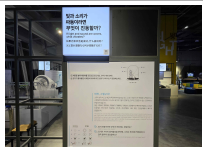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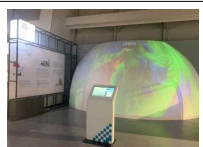
국립과천과학관은 2023년부터 「다시 ON 전시품」을 통해 전시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소개하고, 수요기관의 신청을 받아 3년간 총 53점의 전시품을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해 왔으며, 올해 4년째를 맞아 4개 기관(강서 별빛 우주과학관 등)에 ‘같은 부피 다른 무게’ 등 10점의 전시품을 이전할 예정이다.

특히, 9월 2일에는 새롭게 활용될 전시품에 선물처럼 리본을 달아 새로운 기관으로 보내는 ‘Ribbon’ 과,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관람객을 만나며 전시품이 다시 태어나는 ‘Re:born’ 의 의미를 담고 있는 「리본데이」가 진행될 예정이다.

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전시 공간에서 역할을 다한 전시품이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기관의 전시·교육 자원으로 활용된다. 이를 통해 기관 간 전시 자원 공유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국립과천과학관 이충원 관장은 “전시품이 전시 공간을 떠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” 라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전시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전시품의 가치를 이어가겠다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전략과	책임자	과장	박혜현 (02-3677-1410)
		담당자	주무관	김희정 (02-3677-1427)

기관명	전시품명	사진
국립밀양기상 과학관	기체도 색깔이 있을까?(2)	
구미과학관	원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(2)	
	물체가 왜 떠 보일까?(2)	
제주항공우주 박물관	공기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까?	
	진공 속 빛과 소리	
	미세먼지, 바람에 실려 온 먼지일까?	
강서별빛우주 과학관	원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?(3)	
	같은 부피 다른 무게	
	빛은 렌즈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?	
	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?(1)	

※ 이전 일자는 기관별 상이